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61

베드로후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베드로후서

2 Peter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됨,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음,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1: 5-7)

καὶ αὐτὸ τοῦτο δὲ σπουδῆν πάσαν παρεισενέγκαντες ἐπιχορηγήσατε ἐν τῇ πίστει ὑμῶν τὴν ἀρετὴν, ἐν δὲ τῇ ἀρετῇ τὴν γνώσιν, ἐν δὲ τῇ γνώσει τὴν ἐγκράτειαν, ἐν δὲ τῇ ἐγκρατείᾳ τὴν ὑπομονήν, ἐν δὲ τῇ ὑπομονῇ τὴν εὐσέβειαν, ἐν δὲ τῇ εὐσεβείᾳ τὴν φιλαδελφίαν, ἐν δὲ τῇ φιλαδελφίᾳ τὴν ἀγάπην.

베드로후서 차례

| | |
|------------------------------|---------------|
| 베드로후서 서론..... | 〈9 제〉 ... 215 |
| 제 1 장 하나님을 바로 알자 | 〈20제〉 ... 218 |
| 제 2 장 거짓 선생들의 출현을 경고하다 | 〈27제〉 ... 225 |
| 제 3 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 〈17제〉 ... 234 |

베드로후서 특별 자료 차례

| | |
|--|-----|
| 베드로후서 서론 〈연구 자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教皇)과 베드로 .. | 217 |
|--|-----|

베드로후서 서론

1. ㉠ 본서신의 발신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발신자는 본서신 1:1을 통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다.
- (2) 이처럼 발신자가 서두(書頭)에서부터 자신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서신의 저작 설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 (3) 이러한 논란은 본서신의 저작 연대, 문체, 정경성(正經性)에서부터 시작되어 결국은 발신자의 문제까지로 확산되면서 유수한 신학자들이 수없이 대립해 왔지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는 학설은 찾아 보기 어렵다.
- (4) 베드로가 발신자라는 것에 반대하는 학설들이 분분한데 비해 본서신을 통한 내증(內證)은 발신자가 사도 베드로임을 보다 설득력있게 표명해 주고 있다.
- (5) 먼저, 1:1을 통해 발신자는 자신을 밝히고 있으며 1:14에는 자신이 곧 순교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예언을 취급하고 있다(참조, 요 21:18, 19).
- (6)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變貌) 사건을 목격한 제자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1:17; 마 17:5; 막 9:7; 눅 9:35).
- (7) 또한 3:1에 언급되어 있는 '둘째 편지'라는 귀절로 미루어 볼 때 본서신의 발신자는 베드로전서의 발신자와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서신의 발신자는 '사도 베드로'임이 확실하다.

2. ㉠ 본서신의 명칭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의 명칭은 3:1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의 '둘째 편지'임을 근거하여 '베드로후서'라 불리운다(참조, 벤전 서론 ㉠2).

3. ㉠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수신자는 1:1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으나 이 귀절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대상을 파악하기 힘들다.
- (2) 그러나 3:1에서 '둘째 편지'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때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벤전 1:1) 성도들을 알 수 있다.
- (3) 그런데 베드로는 이와 같이 수신자들을 밝히고 있지만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교회만을 고려해서 본서신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 (4) 따라서 본서신의 수신자들은 일차적으로 그 당시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가리키지만 나아가서는 이단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참조, 2:11)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된다.

4. ㉠ 본서신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신의 기록 연대 문제도 발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 (2) 그런데 앞에서 발신자는 사도 베드로임이 밝혀졌으므로 본서신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A. D. 64년경부터 그가 순교했던 A. D. 68년경 사이로 볼 수 있다.
- (3) 또한 본서신은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A. D. 65-68년경)에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므로 기록 연대를 A. D. 65년 직후로 추정할 수 있다.
- (4)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본서신의 기록 연대는 A. D. 66-67년경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5. ㉠ 본서신의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 (1) 본서신의 기록 장소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임이 확실하다(참조, 편전 서론 ㉠ 6).

6. ㉠ 본서신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가?

- ㉠ (1) 본서신도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과 같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2)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다루고 있는 반면, 본서신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 즉 배교(背敎)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 따라서 베드로는 본서신을 통해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2:1-3)들을 경고하고 또한 성도들이 부도덕한 향락주의에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본서신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7. ㉠ 본서신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 ㉠ (1) 먼저 본서신은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그들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데(2:1-19) 특히 구약의 심판을 인용함으로써(2:4-7, 15, 16) 심판의 당위성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어 주고 있다.
 (2) 그리고 본서신에는 '지식'(1:5, 6) 또는 '알다'(1:2, 3, 8, 12, 14, 20; 2:10, 12, 20, 21; 3:3, 17, 18)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다.
 (3) 이러한 용어 문제로 인해 본서신은 신앙보다는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영지주의(靈知主義, 참조, 요일 서론 ㉠ 10)와 혼동되어 왔으나 본서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식(1:2, 3, 8; 2:20; 3:18)으로서 이단의 그릇된 지식과 비교되고 있다.
 (4) 또한 본서신은 내용에 있어서 유다서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그 공통점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본 서 신 | 유 다 서 | 비교(공통점) |
|----------|--------|---------------------|
| 2:1-3 | 1:4 |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 |
| 2:4 | 1:6 |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
| 2:6 | 1:7 |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
| 2:10-12 | 1:8-10 | 천사를 해방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 |
| 2:15, 16 | 1:11 | 발람 선지자를 통한 교훈 |
| 2:17 | 1:12 | 악인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 |
| 3:2 | 1:17 | 사도들의 권고를 기억할 것 |
| 3:3 | 1:18 | 정욕을 좇아 기롱(譏弄)하는 자들 |

8. ㉠ 본서신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인사말 / 1:1, 2
 (2) 성도들의 특권 / 1:3, 4
 (3) 성도들의 핵심적 덕목 / 1:5-15
 ①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 / 1:5-9
 ② 선택의 확인 / 1:10, 11
 ③ 충고의 필요성 / 1:12-15
 (4) 사도들의 증거로 확증된 진리 / 1:16-18
 (5) 예언서를 통해 확증된 진리 / 1:19-21

- (6)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 / 2:1-22
- ① 거짓 선생들의 행위 / 2:1-3
 - ② 심판에 대한 구약의 전례 / 2:4-10a
 - ③ 거짓 선생들의 무례와 방종 / 2:10b-16
 - ④ 거짓 선생들의 최후 / 2:17-22
- (7) 주의 재림에 관한 약속 / 3:1-18
- ① 둘째 편지의 기록 목적 / 3:1, 2
 - ② 재림을 조롱하는 이단자들 / 3:3, 4
 - ③ 재림에 대한 베드로의 논증 / 3:5-10
 - ④ 재림의 윤리적 의의 / 3:11-16
- (8) 결론 / 3:17, 18

9. ㉠ 본서신의 중심 귀절은 무엇인가?

- ㉠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1:5-7).

연구자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敎皇)과 베드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저들 교회의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교황'(Pope)이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최고위 감독으로서 전교회를 지도할 사목권(司牧權)과 치리권을 소유한 자를 의미한다. 저들 교회는 예수께서 이러한 교회의 지고권(至高權)을 베드로에게 부여하셨다고 주장한다(마16:19).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한 이후 그 같은 지고권은 로마의 감독들이 차례로 전수받아 오늘날의 교황에게까지 이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신 교회는 이 같은 카톨릭 교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부여하셨던 말씀 선포권과 치리권은 예수에 의해 다른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마18:18). 설령 그 같은 권한이 베드로에게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권한이 로마의 감독에게 계승되었다는 점에 대하여선 납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설립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가 로마에서 순교당하였다는 교회의 전승조차 그 사실성 여부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사실을 차치(且置)하고서라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라는 사실(골1:18)을 저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카톨릭 교회는 현재 교황이 누리고 있는 지고권과 영광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 드려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진대 저들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살후2:4)하는 자와 다름없는 자로서 예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살후2:8).

제 1 장 하나님을 바로 알자

단락구분 1-2 베드로의 인사말 / 3-4 성도들에게 특권을 주시다 / 5-7 성도들이 지녀야 할 덕목들 / 8-9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 10-11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 12-15 종교의 필요성 / 16-18 사도들이 증거한 진리 / 19-21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진리

1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앞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앞으로 말미암음이라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 이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케 하심을 잊었느니라

10 그러므로 형제들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라

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2 이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3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이라

15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들을 좇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 하는 것이 가하니라

20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라.

㉠ (1) 본장은 사도 베드로의 두번째 서신 중 앞 부분으로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인사말로(1-4절) 시작되고 있다.

(2) 이어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핵심적 덕목(5-15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16-21절)에 대해(요 1:14; 14:6; 18:37) 긴박한 어조로(참조, 14절) 권면하고 있다.

(3) 그런데 이러한 덕목과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참조, 잠 1:7)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거짓 선생들'(2:1)로부터 성도들을 지켜 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출 13:22)의 역할을 한다.

- (4) 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지식은(렘 4:22;5:4; 롬 10:3)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호 4:6) 우리들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참조, 시 119:99; 요 5:39; 딤후 3:15).

2. **㉠**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절)

- ㉠** (1) 사도 베드로는 본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다.
 (2) 그런데 '종'(헬, 둘로스)은 그 당시 사회 제도상으로 볼 때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로 굴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한편 이러한 의미 외에도 어떤 위대한 인물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뜻에서 '자칭 '...의 종'이라고 한 경우도 있다.
 (4) 예를 들면 신 34:5에 모세는 '여호와와 종'으로 나타나 있고 삼하 3:18은 다윗을 '내 종 다윗'으로, 사 20:3은 이사야를 '나의 종'이라 표현했다.
 (5)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종'은 보편적으로 '성도'라는 의미를 가졌다(행 2:18; 고전 7:22; 엡 6:6; 골 4:12; 딤후 2:24).
 (6) 따라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속된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잠 3:26; 16:20; 시 2:12; 86:2; 렘 17:7; 요 13:25; 21:20) 순종하며(왕상 23:3, 25; 행 5:29)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마 25:21; 고전 4:2; 딤후 2:10; 히 2:17; 계 2:10).

3. **㉠**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편지하고 있는가? (1절)

- ㉠** (1) 그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2) 한편 베드로는 이들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과 동일인들(참조, 3:1)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표현한 것은 권면의 분위기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였다.
 (3) 한편 베드로는 성도들과 자신이 소유한 '보배로운 믿음'은 결코 인간의 선한 의지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의 보혈 공로를 힘입은 것임을 강조하였다(참조, 롬 3:21, 25). 여기서 '보배로운 믿음'이란 그 가치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믿음을 가리킨다(참조, 벰전 1:19; 2:4, 6, 7).
 (4)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서 '우리'와 같이 받은 자'라고 표현함으로써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거리감을 좁혀 더욱 친밀한 입장에서 권면하고 있다.
 (5)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듣는 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명령적이고 일방적인 어조로 하기 쉬운데 본절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태도를 본받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행 15:32; 골 3:16; 살전 2:11; 5:11; 딤후 1:9; 히 13:22).

4. **㉠**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가? (2절)

- ㉠** (1)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앎'은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5, 6절; 3:18) '...위에', '...향하여'라는 의미를 지닌 접두사 <에피>가 붙은 <에피그노시스>를 가리키는(3, 8절; 2:20; 롬 1:28; 고전 13:12) 것으로서 '온전한 지식', '완숙한 지식'이란 의미를 가진다.
 (3) 따라서 이러한 지식은 그 당시 교회 전반에 퍼져 있던 '영지주의'(참조, 요일 서론 ㉠ 10)의 지식과는 다른 보다 근본적인 '지혜'(욥 28:28; 약 3:17; 요일 2:20)를 가리키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고전 13:12).

(4) 우리 인간의 헛된 지식(사 44:25; 고전 8:2; 13:8)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욘 12:13; 시 104:24)를 알 수 없다(롬 11:13; 16:27; 고전 1:25). 그러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약 1:5).

5. **㉠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인가? (3, 4절)**

- ㉠** (1) 먼저,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기(神奇)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3절).
- (2) 여기에서 '신기한 능력'이란 말은 '회한한 능력'(행 19:11)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수 22:22; 시 50:1; 사 9:6; 켈 10:5)의 신적인 능력으로서 '지혜'를 가리킨다.
- (3)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고 했다. 여기서 '생명'이란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원동력, 즉 예수께서 공급하신 힘(참조, 요 1:4)을 의미하며 '경건'은 그렇게 변화된 자가 지니게 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가리킨다(참조, 행 3:12; 답후 3:5).
- (4)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4절)과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3:13)을 가리킨다.
- (5)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다. 우리는 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5-7절)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참조, 엡 4:1-4).

6. **㉠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귀절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가? (4절)**

- ㉠** (1) 본절에서 사용된 '신'(헬, 데이온)이란 단어는 행 17:29에서 바울이 사용한 용어와 마찬가지로 헬라 사상에 따른 이교도적인 표현이다.
- (2) 그런데 이러한 '신'에 대해 이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에는 본래부터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으므로 이것을 잘 개발하면 성인(聖人)이 되고 거스르게 되면 악인이 된다는 것이다.
- (3) 반면 성경의 진리 안에서 볼 때에 인간은 범죄함으로써(창 3장) '거룩한 성품'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로 거듭나야 한다.
- (4)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은 그들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롬 8:9; 갈 2:20)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사건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무관한 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 헛된 욕심 등을 모두 떨쳐 버리게 된다(참조, 약 1:27).

7. **㉠ 베드로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어떠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가? (5-7절)**

- ㉠** (1) 베드로는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5-7절).
- (2)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아래와 같다.

| 순서 | 덕 목 | 내 용 | 참조 귀절 |
|----|-----|-----------------------------|------------------------------|
| 1 | 믿 음 | 하나님의 선물로서 성도의 신앙 생활의 첫 관문이다 | 롬 5:1; 엡 2:8; 히 11:1; 유 1:20 |
| 2 | 덕 |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따라 모든 일에 선 | 롬 14:19; 엡 |

| | | | |
|---|------|--|---|
| | | 을 추구하는 용기이다 | 4:29; 살전 5:11; 뱀전 2:9 |
| 3 | 지식 |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판단력 또는 이해력이다 | 롬 15:14; 고전 13:2; 뱀전 3:7 |
| 4 | 절제 | 하나님을 안(지식) 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바로 파악하고 자신을 매사에 통제할 수 있는 힘이다 | 행 24:25; 고전 7:5; 갈 5:23 |
| 5 | 인내 | 예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환난에 직면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견디어서 끝내는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 롬 5:3; 살후 3:5; 히 14:2; 약 1:4; 계 2:19 |
| 6 | 경건 | 새로운 시각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에 자신을 방임하는 일을 삼가하는 일종의 헌신이다 | 행 10:2; 딤후전 2:2; 약 1:27 |
| 7 | 형제우애 | 경건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면 형제 우애는 인간을 위한 희생과 봉사와 친절이다 | 롬 12:10; 살전 4:9; 히 13:1; 뱀전 1:22 |
| 8 | 사랑 | 이 모든 덕목 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 주신 사랑을 더한다면 성도로서의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다 | 마 5:44; 요 3:16; 갈 2:20; 요일 4:10, 20, 21 |

- (3) 이러한 덕목은 특권을 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의무로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 중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갈 5:22, 23)와 딤후전 6:11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내용이 비슷하다.
- (4) 그런데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덕목 중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위에서 열거한 모든 덕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그 마지막 열매는 '사랑'임을 의미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씨앗을 뿌려 다른 모든 덕목을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참조, 마 13:23) 신실한 농부가 되어야 한다(참조, 눅 24:42; 뱀전 4:10).

8. **㉠** '열매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가? (8절)

- ㉡** (1) '열매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는 데 게으름을 피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력해진 사람을 가리킨다.
- (2) 이러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쓸모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타인에게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회에서 버림을 받는다(참조, 마 5:13).
- (3) 예를 들면 예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마 21:19; 막 11:14) 또한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찍어 버리라고 하셨다(눅 13:7). 이것은 분명히 피상적인 지식이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신앙과 지식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 (4) 이러한 교훈을 본받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쌓는 데 힘을 쓸 뿐만 아니라 깨달은 바를 실천하여 타인들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조, 사 11:9; 53:11; 요 17:3; 빌 3:8).

9. **㉠** 베드로는 5-7절에서 언급한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했는가? (9절)

㉠ (1)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소경'에 비유하고 있다.

(2)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경'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소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안목이 어두운 사람을 가리킨다(참조, 마 15:14; 23:17; 요 9:39-41; 계 3:17).

(3) 따라서 이들은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인간적인 탐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엿 죄' (9절)로부터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마저 잊어버린 채 불경건과 부도덕한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4)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성도들은 인간 세상으로 향해 있는 '안목의 정욕'(요일2:16)에서 눈을 돌려 거룩한 하늘나라를 향해 시야를 넓혀야 한다.

10. ㉠ 성도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어떠한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10, 11절)

㉠ (1) 먼저 이와 같이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失足)치 아니한다'고 했다(10절).

(2) 여기에서 '실족'(헬, 프타이오)은 앞서 말한 '소경'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로서 원래는 말(馬)이 디딤돌에서 미끌어지는 것을 말하나 성경에서는 보통 영적인 범죄를 가리킨다(참조, 롬 11:11; 약 2:10; 3:2).

(3) 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했다(11절).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어떠한 세력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기어코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자는 아무도 없다(참조, 롬 8:35-39).

(4) 그런데 위와 같은 보장은 하나의 약속으로서 주어진 것이므로 성도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곱 가지 덕목(5-7절)을 지킬 때 이러한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1. ㉠ 12절에서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라는 귀절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 (1) 먼저 여기에서 '이미 있는 진리'라는 말을 한 것은 본서신의 수신자들이 베드로전서나 기타 바울 서신들을 통해 앞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주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처럼 본절을 통해 베드로는 비록 그들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지만 이미 진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성도들임을 인정했다.

(3)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으므로(참조, 벰전 2:2) 세상 정욕(벰전 1:14)이나 죄의 유혹을 극복할 힘이 약해 자칫하면 타락하기 쉽다.

(4)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들에게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알려 분위기를 긴박하게 이끌면서(14절) 보다 강렬한 어조로 엄숙하게 권면하고자 한 것이다.

(5) 이처럼 신앙 생활은 어느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성실함이 부족한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새로운 마음과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

12. ㉠ '이 장막(帳幕)에 있을 동안'이란 어떠한 시간적 의미를 가지는가? (13절)

㉠ (1) 여기에서 '장막'(헬, 스케노마)은 원래 고대 근동의 유목 민족들이 임시적인 거주지로 사용했던 천막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장막'은 영원한 영혼의 집인 하늘나라(요 14:2)에 대한 임시적 거주지로서 육체를 말한다.

(3) 따라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란 자신의 목숨이 살아 있을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곧 다가올 것을 예감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14절).

(4) 이와 같이 자신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성도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권면한 베드로를 본받아 우리들도 힘 닿는 데까지 형제를 위해 염려하고 권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행 15:32; 골 3:16; 살전 5:11).

13. **㉠** 14절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다고 했는가?

- ㉠** (1) 요 21:15-19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실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 (2) 그런데 베드로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이전에 예수께서 그가 순교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충성스럽게 목양 활동을 계속했다.
- (3) 먼저 베드로는 박해로 인해 방황하는 하나님의 양 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격려와 위로로 보호하고 또한 양 떼들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 같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2:1-3)에게 유혹되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하였다.
- (4) 베드로는 이같이 예수께서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고 A. D. 68년경 순교하였다.
- (5)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참조, 행 7:54-60).

14. **㉠**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부탁한 '이런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5절)

- ㉠** (1) 먼저 본서신의 권고 내용을 가리킨다는 학설이 있다(Bengel, Kühl, Wiesinger).
- (2) 또한 '이런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 후계자로 유능한 지도자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Huther, Strachan).
- (3) 그러나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본절에 언급된 '이런 것'은 베드로가 사도 마가를 통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할 것이라는 베드로의 저작 계획을 가리키는 것이란 견해로서 이 학설은 이레니우스(Irenaeus), 파피아스(Papias) 등의 학자들이 마가복음 저작설에서 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 주고 있다(참조, 막서론 ㉠1).
- (4) 이러한 사실로 보아 베드로는 본서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순교한 후에도 마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땅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5. **㉠**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6-18절)

- ㉠** (1) 먼저 베드로가 본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재림 사상을 부정하던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에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2) 이러한 목적 아래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 사건(마 17:2)의 목격자임을 밝히고 있다.
- (3) 또한 그는 예수의 변모를 목격했을 뿐 아니라 변화 중에 들려 오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므로(17, 18절; 마 17:5; 막 9:7)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 모두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었다.
- (4) 베드로는 이와 같은 자신의 체험을 들어 권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근신하여 살아가도록 종말론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16. **㉠** 베드로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 (16절)

- ㉠** (1)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성도들에게 확신시키려고 했다.
- (2) 여기에서 '능력'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롬 14:9; 골 1:18)을 가리키며 주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나타난다(마 26:64; 막 14:62; 행 1:11; 히 9:28).
- (3) 그리고 '강림하심'(헬, 파루시아)이란 '같이 있음'(참조, 빌 2:12)을 뜻했으나 여기에서 '움'(교전 16:17)이란 말로 쓰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마 24:3; 교전 15:23).
- (4)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심판주(마 16:27; 19:28)로 재림하실 그분의 '신기한 능력'(3절)을 역설함으로써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 (5) 한편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

왜곡된 진리를 가리키는 이단 종파들이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본질에서 밝히고 있는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17. **㉠** 예수께서 변모하실 때 베드로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17, 18절)

- ㉠** (1) 베드로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당신의 부활과 재림을 계시하신 것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진 것이다. 이 사건을 본서의 기자인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연상하는 가운데 이 글을 썼을 것이다(참조, 마 17:1-8).
- (3)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마 3:13-17) 들려 왔던 소리와 동일한 내용(마 3:17)의 말씀이다.
- (4) 이와 같이 영광 중에서 나타난 일들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장차 오실 왕으로서의 그의 영광을 미리 보여 준 것이다(참조, 단 9:25; 요 4:25).
- (5) 베드로는 이러한 장면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 결코 거짓 교사들의 꾸며 낸 이야기로써가 아니라 진실로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쳤던 것이다. 이처럼 복음 전파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간증들이다.

18. **㉠**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했는가? (19절)

- ㉠** (1) '날이 새어 셋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고 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셋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민 24:17; 계 2:28; 22:16).
- (3) 한편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19a절) 죄와 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실족하지(10절)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 (4) 그러나 '셋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요 1:7-9; 12:46)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영광의 빛(마 17:2)으로 가득 차므로 이때까지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 역할을 하던 예언의 말씀이 불필요하게 된다(참조, 고전 13:8).
- (5) 따라서 우리들은 '셋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는 어두운 세상에서 실족치 않도록 예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딤펴전 1:18; 계 1:3).

19. **㉠** 베드로는 예언의 해석에 있어서 어떠한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가? (20절)

- ㉠** (1) 그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예언을 사사(私私)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 (2)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21절) 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므로 '사람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자기 지식에 따라 마음대로 성경을 풀이했던 '무식한 자'들은 이러한 명령을 거역하고 예언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였다(3:16; 계 22:18, 19).
- (4) 요즘 일부 교회에서는 부흥회라는 신앙 집회 때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여 마음대로 예언하는 행위가 남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예언을 잘못 다루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빌 2:12) 예언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

20. **㉠** 베드로는 '예언'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21절)

- ㉠** (1) 그는 예언이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 (2) 바울도 예언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다(딤펴후 3:16).
- (3)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중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록되었음을 말해 준다.
- (4) 즉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의 인격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誤謬) 없이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팍한 지식으로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려 들지 말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언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 2 장 거짓 선생들의 출현을 경고하다

단락구분 1-3 거짓 선생들의 추악한 행위 / 4-9 심판에 대해 구약의 전례(前例)를 들어 경고하다 / 10-16 거짓 선생들의 무례와 방종 / 17-22 거짓 선생들의 죄후

1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 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좃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

3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4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뜻을 건지셨으니

8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9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10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훼방하거나와

11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훼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12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

을 훼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14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좃는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16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17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에 비되어 있나니

18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19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20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엮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더 심하리니

21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22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그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1) 베드로는 본장을 통해 전장(前章) 후반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1:19-21)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유혹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다.

(2) 본장에서 먼저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실상을 규명하고(1-3절)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구약의 전례를 들어 경고했다(4-9절).

- (3) 또한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의 무례하고 방종한 행위를 자세히 구별해 줌으로써(10-16절) 그들을 본받지 않도록 하였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밝혀서(17-22절) 경고의 어조를 더욱 강렬하게 했다.
- (4) 한편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은(마 24:5, 24; 요일 2:22; 4:3; 요이 1:7) 말세의 전조(前兆)를 의미한다(3:3; 요일 2:18; 유 1:18).
- (5)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더욱 간교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으므로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참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참조, 고후 6:7; 엡 6:14-17; 히 6:17; 요일 2:5; 계 3:10; 22:7).

2. **㉠**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을 비교하여 설명하라(1-3절).

㉠

| 구분 | 거짓 선지자 | 거짓 선생 |
|----------|---|---|
| 언급된 성경구절 | 신 13:5; 18:22; 사 9:15; 렘 2:8; 5:31; 6:13; 14:14; 23:16; 겔 8:9; 13장; 호 9:7; 암 7:16; 미 3:5; 습 3:4; 숙 13:3 | 10-22절; 1:2, 3; 3:16, 18; 요이 1:9-11 |
|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신을 대표하는 자(왕상 18:19) •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말하는 자들(렘 23:9-32; 28장; 29:15-3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1절) •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자(3:16) •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요이 1:9) |
| 활동시기 | 구약시대 | 신약시대 |
| 행동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 평화를 외침(렘 6:13; 겔 13:10, 16) • 우상 숭배(겔 8장) • 거짓말을 하고 거짓 환상을 봄(겔 13:6-8) • 죄를 감춤(겔 13: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진리를 부인함(1, 2절) • 무례와 방종(10-22절) •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함(3:4) •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요일 2:4) |
| 반응형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회에 들어가지 못함(겔 13:9) • 호적에 기록되지 못함(겔 13:9) •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함(겔 13: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망케 됨(1, 3, 19-22절) |

3. **㉠** '거짓 선생들'의 행동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3절)

㉠

- (1) 거짓 선생들은 멸망을 초래할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1절).
- (2) 그런데 그들의 거짓 진리는 아주 교묘하므로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된 성도들은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기 쉽다(2절).
- (3) 또한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꾸며 낸 말로 성도들을 유혹한다(3절).
- (4) 이처럼 그들은 득세(得勢)하여 날뛰고 있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3절).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일 없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출 15:13; 시 54:1; 71:18; 골 1:11; 벧전 4:11)을 의지하여 그들의 일시적인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참조, 삼상 23:16; 사 27:5).

4. **㉠** 거짓 선생들은 주를 부인하기 위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는가? (1절)

- ㉠** (1) 그들은 '이단'을 끌어들이어서 이것으로 주를 부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는다.
 (2) 여기에서 '이단'을 가리키는 헬라어 <하이레스시스>는 원래 '선택'이라는 뜻을 가진 좋은 말이었다(참조, 마 12:18).
 (3)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은 아집(我執)과 편견(偏見)이라는 독선(獨善)에 빠지기 쉽다.
 (4)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율법만을 고집하는(참조, 마 23장; 눅 7:30) '사두개인' (행 5:17)이나 '바리새인' (행 15:5)들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예비교파, 영지주의자들, 방종주의자들인 니콜라파(계 2:6, 14)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하였다.
 (5) 이와 같이 '이단'들은 성경의 진리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자신들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일부분만 주장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편하게 믿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에 유혹되기 쉽다.
 (6)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이단에 유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경의 진리를 깨우치는 데에 힘을 다하여야 한다(참조, 시 1:2).

5. **㉠** 거짓 선생들이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그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였다.
 (2) 여기서 '쌌다'는 말은 인간의 심각한 죄악의 참상과 그리스도의 값진 구속을 모두 강조하는 말이다(참조, 막 10:45; 딤후 2:6; 계 5:9).
 (3)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참조, 삼하 7:23) 당신의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제공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압제당하고 죄악의 노예로 헤매던 인간을 구속하시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참조, 벧전 4:2).
 (4) 따라서 거짓 선생들의 죄는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인류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데 있다.
 (5)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던 그 죄 문제의 심각성만큼의 엄청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요 3:16).

6. **㉠** 진리의 도가 꾀방을 받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2절)

- ㉠** (1)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의 호색(好色)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2) 여기서 '호색'이란 말은 방탕한 습관이나 부도덕한 생활을 가리키는 말인데 성적(性的)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활에서도 방탕한 행동을 하게 된다.
 (3) 그런데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은 '진리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깨끗케 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을 어그러지게 하여 정통 신앙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흔히 사람들은 쉽게 살며 즐겁게 지내는 것에 대해 동경하고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면 쉽게 자신을 방임한다. 이러한 현상이 '진리의 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교회는 이러한 자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를 때가 있다(참조, 계 2:20).
 (5)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판단과 쉽고 편하게 신앙 생활하려는 생각 때문에 기독교회 전체가 나쁜 영향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게 한다. 따라서 교회 전체는 항상 '진리의 도'만을 가장 귀한 삶의 규범으로 알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참조, 고후 2:15).

7. **㉠** 거짓 선생들은 일반 성도들로부터 무엇을 노리는가? (3절)

- ㉠** (1) 그들은 자신들의 ‘탐심’(貪心)을 채우려고 말을 지어 내어 일반 성도들로부터 이(利)를 얻으려 한다.
- (2) 여기서 그들의 ‘탐심’이란 타인의 소유에 대해 욕심을 갖는 것이나, 분수 이상의 명예나 권리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 (3)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 교묘하게 종교적인 색채를 띤 말을 지어 내어 일반 성도들에게서 돈을 갈취(謁取)하려 했다(딤후 6:5).
- (4) 그러나 그들에게는 멸망이 줄지 않는 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과 같은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았던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 확인할 수 있다(참조, 신 13:1-5).
- (5) 오늘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 그리고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자신의 욕망(부, 명예, 권력)을 위한 도구로 보는 사악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면 즉시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했기 때문이다(4-11절).

8. **㉠** 범죄한 천사들은 어떤 형벌을 받았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 (2) 베드로는 본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공평한 심판의 실례(實例)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비록 지체될 수는 있을지언정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강조한다(참조, 히 10:37; 계 16:15).
- (3) 그중 본절에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형벌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 죄목(罪目)은 지적되지 않았지만 창 6:1-4; 유 1:6; 계 12:7에 의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가 분명하다.
- (4) 그리고 그들의 형벌 장소인 ‘지옥’(헬, 탈타로스)은 헬라의 신화에 의하면 신들의 왕에게 반역한 신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가장 깊고 무서운 곳을 말한다.
- (5) 그런데 천사 타락에 대한 이야기는 이 뿐 아니라 위경 예녹서 10:4; 54:4, 5 과 바룩서 56:12, 13에도 나타나는데 이는 창 6:1-5에서 비롯된 이야기이다.
- (6) 이처럼 하나님의 천사마저도 범죄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악의 권세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악의 세력이 우리를 도전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삼아 만반의 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참조, 벰전 5:8).

9. **㉠**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베드로가 주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인가? (5절)

- ㉠** (1) 그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악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좇을 것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짓게 하였다.
- (2) 즉 어느 편을 택하든지 그들 스스로의 결단으로 홍수 이전의(옛 세상) 노아와 같이 구원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 세상’과 같이 멸망을 자초하든지 하라는 말이다.
- (3) 이것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나 실제(實際)로 얻은 자들은 극소수(노아와 일곱 식구)에 불과했다는 사실과 동시에 심판의 확실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3절).
- (4)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결단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과감히 진리의 명령을 따라서 결코 의를 저버리고 끝내 멸망의 자리에 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신 16:20; 시 82:3).

10. **㉠** 노아는 어떠한 신앙 인물이었는가? (5절)

- ㉠** (1) 그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

- (2) 구약 성경에 노아가 의를 전파시킨 사람이라고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창 6:9)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 자체가 주위의 불경건한 자들에게 의를 전파시켰을 것이다.
- (3) 이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타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보여,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이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딤후 4:12; 딤후 2:7).

11. **㉠**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을 내리신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그것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 (2) 즉 불의는 결국 파멸로 끝난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적 행위이다.
- (3) 그러나 이 사실을 항상 잊고 사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불의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만다(참조, 시 9:5; 34:21).
- (4)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철학이나 신학적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다.

12. **㉠** 베드로는 롯의 구출 이야기를 무슨 목적으로 기록하였는가? (7절)

- ㉠** (1) 그것은 당시 멸망케 될 이단을 과감하게 거절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 (2) 즉 롯의 주위에는 무수한 악인들이 있어 그를 괴롭혔으나 그는 조금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의를 지켰기 때문에 의인으로 지목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곤궁에서 그를 구원하셨던 것이다(창 19:16-22).
- (3) 이처럼 의인은 비록 환난 가운데서 시련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참조, 시 37:25).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반드시 지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참조, 신 8:2; 약 1:2, 3).

13. **㉠** 롯이 소돔 성에서 그 의로운 심령을 상(傷)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8절)

- ㉠** (1) 그것은 그가 소돔 성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 (2) 실제로 그가 소돔 성에 살게 된 것은 완전히 자신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참조, 창 13:8-13). 그러나 그는 소돔 사람들의 불의한 행실로 인해 결국 심령의 상처를 입어 기진맥진하게 되었다(참조, 창 19:4-11).
- (3) 즉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주위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루라도 마음 편한 날이 없는 그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것은 선을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성도들이 느껴야만 하는 고통이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죄에 대해 경각심을 잃지 말고 자신의 선을 향한 마음을 예민케 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참조, 전 7:20).

14. **㉠**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9, 10절)

- ㉠** (1)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刑罰)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主管)하는 이를 멸시(蔑視)하는 자들은 특별히 형벌하실 것이다.
- (2) 이것은 4-8절까지에 대한 귀결 부분이다. 그런데 '시험에서 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부터 건진다는 의미이다.
- (3) 이것은 곧 노아와 롯이 의의 길을 걷다가 시험을 만날 때에 승리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반면에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의로운 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심판과 형벌이 있음을 가리킨다.

- (5)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이 행한 죄악의 보상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에서 떠나지 못할 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불의한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곧 심판이다.
- (6) 그리고 ‘주관하는’이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거짓 선생들은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과 견해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까지 감행하였다(참조, 유 1:8). 이러한 자들에게 기대할 것이라고는 멸망밖에 없다.
- (7) 그러나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시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참조, 잠 18:10).

15. **㉠** 불의한 거짓 선생들의 교만은 어느 정도였는가? (10절)

- ㉠** (1) 그들은 담대하고 고집스러워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책방할 정도로 안하무인(眼下無人)이었다.
- (2) 즉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할 정도로 무모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들이었다.
- (3) 한편 ‘영광 있는 자’란 하늘의 천사를 가리키는데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마저 업신여길 정도로 교만하였다.
- (4) 따라서 그들은 이 같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범죄한 천사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4절).
- (5)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은 전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의 전형(典型)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12절).

16. **㉠** 교만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 천사들은 어떻게 대했는가? (11절)

- ㉠** (1) 비록 천사들이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책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았다.
- (2) 이는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모독적인 정죄를 하지 않는데 하물며 거짓 선생인 주께에 그와 같이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또한 이 귀절은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무시하고 아무나 모욕하는 거짓 선생들과 달라 주 앞에서 영원히 살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비난이라 할지라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 (4) 이처럼 아무 흠이 없고, 죄악된 인간들의 부패상을 파헤쳐 고발하고 비난할 수도 있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던 사실은 너무 쉽게 형제를 정죄하고 마치 거짓 선생들처럼 양심의 거리낌없이 말을 꺼내는 오늘의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참조, 약 3:2-12).
- (5) 한편 우리 성도들은 결코 거룩한 것과 존귀한 것을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신의 사악함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며 자신의 죄악을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참조, 시 73:11; 잠 24:9; 뱀 17:15).

17. **㉠** 베드로는 이 같은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규정하였는가? (12, 13절)

- ㉠** (1)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理性) 없는 짐승같다’고 규정하였다.
- (2) 즉 그들은 천사들처럼 절제하는 자들이 아니라 짐승과 같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들이었다.
- (3) 그들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면서도 오히려 정욕에 자신들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결국 그

들은 정욕에 의해 멸망받을 것이다.

(4)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 좋아 정욕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삶에 의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참조, 롬 1:24, 25).

18. **㉠** 무지 몽매(無知蒙昧)한 거짓 선생들은 결국 어떤 운명에 빠질 것인가? (12, 13절)

- ㉠** (1) 그들은 결국 그 알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할 것이다.
- (2) 이는 그들에게 영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능력이 있음을 가장하여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광’ (10절)에 대해 책망하였기 때문이다.
- (3)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이성이 없는 동물이 본능적으로 날뛰는 것과 같은데 그러한 동물은 그 행동의 결과를 염두에 두거나 생각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동물과 같이 정욕에 좌우되어 생활하는 사람은 동물이 당하는 운명처럼 끝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 (4) 더우기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한 생활에 의해 더욱 부패해져서 결국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즉 그들은 악을 쌓으면 쌓을수록 심판이 가깝고 또한 그 결과가 엄청난 것임을 몰랐던 것이다.
- (5) 인간은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욕망을 채우기 원하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불의한 방법은 그 자체 내에 부패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고 만다는 사실이다(참조, 잠 12:26; 29:6).

19. **㉠** 거짓 선생들의 쾌락의 양상(樣相)은 어떠했는가? (13절)

- ㉠** (1) 그들은 낮의 연락(宴樂)을 기쁘게 여기며 이 서신의 수신자들과 함께 연회(宴會)할 때에도 저희 간사(奸詐)한 가운데 연락하여 점과 흠을 남기는 자들이었다.
- (2) 즉 그들은 대낮에 먹고 즐기기를 좋아했는데 주로 저녁 식사가 풍성했던 그 당시 시대 배경으로 보아(참조, 계 3장 **㉠**26) 이들은 분명 호사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기던 무리로서 이웃의 빈축을 사기에 족했을 것이다. 특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베푸는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거룩한 교제를 세상의 사교장처럼 여기어 교회의 나쁜 이미지를 남기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나큰 오점(汚點)을 안겨 주었다.
- (3) 사도 유다(유 1:12)는 이 같은 자들을 ‘애찬의 암초’라고 하였는데 당시 교회 내에는 이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 (4) 아뭏든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으로서 공동체의 점과 흠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흠도 없고 점도 없다고 하였다(벧전 1:19).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타인에게 비난받을 만한 어떤 점도 티도 없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참조, 엡 5:27).

20. **㉠** 거짓 선생들의 타락은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 (14절)

- ㉠** (1) 그들은 음심(淫心)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탐욕에 연단(鍊鍛)된 마음을 가졌다.
- (2) 즉 그들은 여자를 볼 때마다 음욕을 품었으며 그들의 머리 속에는 항상 음란한 생각이 가득했는데 정욕은 그들을 불안하게 하여 좀더 많은 만족을 찾아 헤매게 했다. 이것이 정욕의 노예가 된 상태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코 만족이라고는 없었다(참조, 전 1장; 2:1-11).
- (3) 이러한 그들은 약한 영혼을 가진, 즉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항상 유혹받기 쉬운 심령을 가진 여인들을 피어 자신들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했다.
- (4) 그들은 탐욕 곧 돈이나 불륜(不倫)의 성 관계에 젖은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했다(참조, 갈 3:10, 13).

(5) 이처럼 쾌락은 참으로 즐겁고 인생을 유쾌하게 만들지만 그 쾌락에 탐닉(耽溺)하면 할수록 더 큰 쾌락을 요구하고 급기야 돈과 건강과 영혼을 동시에 잃는다(약 1:15).

21. **㉠** 거짓 선생들의 행위는 구약의 어떤 인물의 행위와 비유되었는가? (15, 16절)

- ㉠** (1) 그들은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인 발람과 같은 행동을 했다.
 (2) 여기서 그들이 발람에 비유된 이유는 그들이 탐심을 갖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불의한 삿을 바라고 이교도인 발람에게 고용된 발람과 같았기 때문이다(민 22:22-24;31:16).
 (3) 발람은 발람에게 돈을 받고 모압 여인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켰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남자들 중 많은 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것이다.
 (4) 그리하여 선지자 발람은 별 가치 없는 나귀에게 책망을 들을 정도로 하찮은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더러운 이익 때문에 양심을 팔고 남을 타락의 길로 유혹하는 무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민31:8).

22. **㉠** 거짓 선생들의 장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17절)

- ㉠** (1) 그들은 물 없는 샘과 같으며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로 그들의 앞에는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豫備)되어 있다.
 (2) 여기서 ‘물 없는 샘’이라 함은 그들의 거짓된 교훈이 만족을 주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그들의 교훈이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마치 새로운 샘을 발견한 것 같은 흥분을 일으키지만 실상은 물 없는 샘과 같이 곧 허탈에 빠지게 한다는 말이다.
 (3) 또한 그들의 교훈의 불안정성과 일시적인 성격이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에 비유되었는데 이는 광풍에 밀려다니기 때문에 메마른 땅에 충분한 습기를 제공할 수 없다.
 (4) 이처럼 그들이 주는 교훈은 헛겁데기이며 오히려 교회에 혼란과 어두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훨씬 더 질고 영원한 어두움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
 (5) 이와 같이 일시적인 쾌락과 귀에 즐겁고 자극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좋은 듯하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생명의 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자(요 4:13, 14)만이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된다.

23. **㉠**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미혹에서 벗어난 자들을 어떻게 다시 유혹하였는가? (18절)

- ㉠** (1) 그들은 허탄(虛誕)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誘惑)하였다.
 (2) 대체로 ‘허탄한 자랑의 말’이란 도덕적 건전성은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열광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주로 예언자적인 발언을 하여(말을 토하여) 사람들을 미혹케 하며 믿음이 적은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음란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이다.
 (4) 그리고 그 미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겨우 피한 자들’ 곧 이교 신앙에서 최근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선(善)에 대해서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5)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사람들을 이끌려면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이용한다. 인간의 욕구에 호소하는 종교는 ‘이단’이라 규정해도 무방하다(딤후 1:11).

24. **㉠**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구호(口號)는 무엇인가? (19절)

- ㉠** (1)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자들이라고 선전한다.
 (2) 그러나 그들의 자유란 곧 방종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는 원래 그들에게 약속된 자유와는 전혀 판판이다. 이 자유는 육체의 정욕에 유혹당할 사람들에게 약속된 자유이다.
 (3) 실제로 그들은 자유롭지 못하며 단지 ‘멸망의 종’에 불과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썩어질 것인 쾌락과 물질을 위해 종 노릇하기 때문이다(참조, 엡 4:22).
 (4) 따라서 그들은 부패와 멸망의 종이 되었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

을 뿐 아니라 자신들도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9절).

- (5)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속박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다(갈 5:1).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그분을 의지해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참조, 요 6:37-39).

25. **㉠** 배교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절)

- ㉠** (1) 그들이 설혹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을지라도 다시 그것에 얽매인다면 그 나중 형편(形便)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 (2) 이 말은 거짓 선생들이 한때는 정통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게 되었다.
- (3) 그런데 그들의 형편이 예전보다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람이 만일 옳은 길을 몰랐다면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탓하기 어렵다.
- (4) 즉 그가 진리를 만난 일이 없고 예수의 복음을 들은 일이 없다면 그 불순종을 정죄하기 어렵다. 그러나 만일 알고도 고의로 만 길을 걸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참조, 요 8:12)에 대해 범죄한 것이며 최선을 알고도 최악을 취한 것이다.
- (5) 따라서 이미 그가 알았던 진리에 대한 지식과 빛에 대한 이해(요 3:18-21)가 현재의 그를 정죄할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책임을 잊을 때가 많다.
- (6) 그런데 본절의 말씀은 마 12:45과 눅 11:26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므로 형편이 더 악화된 사람의 이야기와 동일하다.

26. **㉠** ‘의(義)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란 무엇인가? (21절)

- ㉠** (1)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입으로만) 후 받은 기독교의 진리이다.
- (2) 그런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뢰하는 자에게 자유와 기쁨을 제공하지만(참조, 요 8:32) 전성으로 신앙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짐이 된다.
- (3) 이처럼 교회 안에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하며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이 천국으로 화(化)하는 자(Christian)가 있는 반면, 거짓과 위선으로 신앙 생활하며 감격과 감사가 전혀 없는 자기 의(義)와 열심에 도취된 교회인(church-man)들도 있게 마련이다.
- (4)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 없이 신앙 공동체에 끼여든 자는 언젠가(환난 등으로 인해)는 교회를 떠나게 된다. 결국 이런 자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멸망과 허무밖에 없다.

27. **㉠** 복음을 영접한 후 다시 배교한 거짓 선생들은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22절)

- ㉠** (1) 그들의 행위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썩었다가 더러운 구멍이에도 로 누웠다’는 속담에 비유되었다.
- (2) 개에 대한 비유는 잠 26:11에서 인용한 것이며 돼지에 대한 격언은 시리아의 ‘아히칼’(Ahikar) 설화에도 나타나 있다.
- (3) 이 속담은 회개했다가 다시 배교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
- (4) 한편 회개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1:4)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영광을 누리게 할 수도 있다.
- (5) 그러나 거짓된 회개자는 배교할 수 있다. 따라서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배교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교훈을 주었던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거짓 교훈이다. 거짓 교훈은 대체로 예수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부인하며 그의 부활과 재림마저도 부인하거나 아니면 재림에 대해 자기 멋대로의 해석을 한다(참조, 요일 4:2, 3).

제 3 장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단락구분 1-2 교훈의 목적/3-5 재림에 대한 거짓 소문/6-7 심판과 악인의 운명/8-9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10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11-13 재림을 위한 성도의 준비/14-18 거룩하고 굳센 삶을 살라

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들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2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4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는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 주의 약속은 어떤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 가고 체질이 뜨거

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이다

1. ◎ 본장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 (1) 베드로는 본장에서 주의 재림을 주제로 하여 권고를 시작한다. 그는 먼저 베드로전서에서 자신이 말한 사실을 되풀이하여 수신자(受信者)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였다(1-3 절).

(2) 즉 주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 소문이 나돈 후에 주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교훈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며,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3) 더우기 그때에는 무법한 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유혹할 것인데 성도들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4) 초대 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미 기다림에 지쳐 희망을 잃은 사람들도 많다. 이럴 때마다 예수에 대한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18절).

2. **㉠** 베드로는 본서를 쓴 목적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1, 2절)

- ㉠** (1) 먼저 수신자들의 진실(眞實)한 마음을 일깨워 선지자의 예언과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썼다고 말했다.
- (2) 그런데 1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이단에 휩쓸리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멀리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 (3) 또한 그는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고 전한 구약의 예언과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본 사도들이 전한 계명을 기억하도록 이 서신을 쓴다고 했다.
- (4) 그런데 2절에서 ‘거룩한’이란 말을 사용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부인하면 불경의 죄박에 짓는 것이 없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 (5) 그리고 ‘너희의 사도들’이란 예수의 열 두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들과 인격적 교류를 가졌던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킨다.
- (6) 이렇게 볼 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2000년 복음의 전통은 기독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딤편 3:16).
- (7)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복음을 접할 때마다 새로운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것이다. 더우기 그 복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부지런함도 있어야 한다.

3. **㉠**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3절)

- ㉠** (1) 그들은 2:1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이다.
- (2) 베드로가 이러한 기롱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좇아 기롱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2장에 언급된 거짓 교사들임을 알 수 있다(2:2, 3, 10, 13-18).
- (3)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말세에(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의 목적은 단지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4) 즉 그들은 불변하는 진리마저도 자신들의 거짓된 속셈에 끼어 맞추고 또한 그런 거짓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파렴치함을 자행한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기롱하는 자들의 술수를 배척해야 할 것이다.

4. **㉠** 기롱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4절)

- ㉠** (1) 그들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祖上)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 (2) 초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은 죽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 둘 죽는 자들이 나타났다.
- (3) 더우기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 중에는 재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4) 그들은 ‘창조 이후로 우주는 안정적이며 규칙적이기 때문에 재림과 같은 돌발 사태는 일어날 수 없으며 조상들이 모두 죽기까지 예수는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개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5) 이처럼 오늘날에도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신앙이 과학적 해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합리

주의자들이다(참조, 창17:17;민11:21).

- (6) 그러나 신앙의 진리는 결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며 단지 믿음으로써만 얻어질 수 있는 선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참조, 히 11:1).

5. **㉠**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5, 6절)

- ㉠** (1) 그것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成立)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이다(참조, 창 1:1).
- (2) 베드로는 조롱자들이 제시한 마지막 논증부터 먼저 처리하였다. 즉 세상이 불변한다는 그들의 전제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상이 불변하며 재림이 없을 것이라는 그들의 결론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 (3)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신 홍수 사건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그러나 홍수 사건의 교훈은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전혀 없음을 가르쳐 준다(참조, 시 47:2, 3, 8).
- (4) 또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하나님의 명령)은 심판의 말씀이 되어 땅 위의 생명체를 삼키고 말았는데 이것은 곧 예수 재림을 예언한 것이다(참조, 시 96:13).
- (5) 그러므로 그들이 부인하는 ‘예수 재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 (6) 이처럼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은 그 진리가 말하고 있는 것마저도 왜곡시켜서 세상으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한다(참조, 롬 16:18).

6. **㉠**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위해 어떤 조치가 준비되었는가? (6, 7절)

- ㉠** (1) 하늘과 땅이 그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看守)되었다.
- (2) 그런데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 상태와 똑같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로 세상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날 곧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날에는 불경건한 자들이 불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실 때에야 비로소 나타날 사건이다. 즉 이 심판은 최후의 날까지 유보 상태에 있게 된다.
- (4) 그런데 이 불이 어떠한 종류이며 어떤 형태로 이 세상에 임할지 모르지만 그 불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악을 멸하시고 불의한 온 세상을 정화(淨化)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참조, 고전 3:13; 살후 1:8; 벰전 1:7).
- (5) 이 같은 불의 심판은 ‘여호와와 날’에 대한 구약의 예언 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사 29:6; 30:30; 34:4; 단 7:9, 10; 율 2:30, 31)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불의 심판으로 멸망한 적이 있다(왕하 25:8, 9).
- (6)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며 자신은 결코 죄인이 아닐 뿐 아니라 심판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마 25:31-46).

7. **㉠** 베드로는 인내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고를 하였는가? (8, 9절)

- ㉠** (1) 주께는 하루가 천 년(千年)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으며, 주의 약속(約束)이 더딘 이유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멸망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성도들에게 권고하였다.
- (2) 베드로의 이 권고는 재림 지연(遲延)을 비웃는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한 영적인 무기를 이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보시는 시각(視覺)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즉 예수의 재림이 천 년이나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영원에 비추어 볼 때 그 기간은 단 하루에 불과할

수도 있으며 더우기 하나님의 하루는 천 년과 같기도 한 것이다(참조, 시 90:4).

- (4) 한편 시간은 하나의 기회로 볼 수 있다. 즉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의 은사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이며, 자신의 발전과 타인을 위한 봉사의 기회가 되며, 자신을 성화(聖化)시킬 기회가 되는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재림의 순간을 늦추시는 것이다(참조, 딤후 2:4).
- (6)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감사하며 보다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이다(참조, 롬 10:13; 딤후 2:4).

8. Q 베드로는 심판의 날을 구약의 어떤 사상에 비유하였는가? (10절)

- A (1) 베드로는 신약의 예수 재림을 구약의 '여호와의 날'과 비교하여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약적인 관점에서 '주의 날'로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2) 즉 그 변화는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섭을 통해 찾아오고, 깨끗하고 정화(淨化)된 새 세상이 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 (3) 따라서 베드로가 보는 역사관은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물음은 무엇인가?
- (4) 그것은 '심판을 맞이해야 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의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인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며 그에 따른 심판의 결과도 각기 다르다(참조, 마 25:31-46).

9. Q 베드로는 주의 날이 어떤 형태로 임하리라고 말했는가? (10절)

- A (1) 그는 주의 날이 도적(盜賊)같이 임할 것이며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體質)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뿐 아니라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 말했다.
- (2) 재림은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치 밤의 도적처럼 갑자기 뿔밖의 재앙으로 임할 것이다. 그날은 경고도 없이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임할 것이다(참조, 마 24:43, 44; 눅 12:39, 40; 살전 5:2).
- (3) 여기서 하늘이 '큰소리' (헬, 로이제돈)로 떠나갈 것이라 했는데 이 말은 공중에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나 불꽃 튀기는 소리, 채찍을 내리치는 소리, 거센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그날의 심판이 대단히 무서운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 (4) 그리고 '체질'이란 흙, 공기, 불, 물 등 물질적인 요소를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은 만물이 이런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체질이 풀어진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된다는 말이다.
- (5) 또한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고'는 귀절은 이 세상의 모든 건물과 피조물들이 불에 타버리거나 사라질 것을 의미한다.
- (6) 따라서 이 최후의 심판은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사라지는 우주적 재앙임을 알 수 있다(사 13:9; 습 1:14, 15; 율 2:1, 2, 31).
- (7) 이처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심판 날은 필연적으로 닥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그 심판을 모면하려는 온갖 노력보다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매일매일을 성결하고 준비성 있게 지내는 것이다(참조, 약 5:8; 뱀전 4:7).

10. Q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권면했는가?

(11. 12절)

- Ⓐ (1) 그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2) 즉 만물이 확실히 파멸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존한 사람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 (3) 그런데 주의 날이 오는 것을 조롱하는 자들은 만물이 언제나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지 않는다. 즉 그들은 언제나 현재적이며 일시적인 것에만 집착하여 살고 있다. 그러나 거룩함과 경건은 내세적이며 영원한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참조, 엡5:5).
- (4) 따라서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생활이다. 여기서 '바라보고' (헬, 프로스도카오)는 '기다린다'는 말인데 사람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해 있다는 뜻이다.
- (5) 그러므로 주의 재림에 대해 비웃지 않고(3절) 그 기대를 확고히 가진다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다(2, 8-10절).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최상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 세상의 풍조가 어떠한 경건한 성도들은 항상 마음을 하늘 나라에 두고 주의 오심을 고대해야 한다.

11. Ⓒ 하나님의 날에 경건한 자들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인가? (12, 13절)

- Ⓐ (1) 비록 그날에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지만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은 의의 거(居)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 (2) 일반적으로 예수의 재림을 '주의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참조, 계 16:14).
- (3) 그런데 '하나님의 날'은 멸망과 재앙의 날로서 불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지만 그 무서운 심판이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죄악의 더러운 찌꺼기를 태우는 날로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참조, 10절; 벰전 1:7).
- (4)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이 썩어질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를 위하여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들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이다(참조, 계 21장).
- (5) 한편 이사야(사60:19, 20)와 사도 요한(계 21:27)과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의의 영원한 집이 될 것을 강조했다. 즉 그곳에는 모든 악이 멸절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사는 모습만이 보이게 될 것이다(참조, 마13:41-43; 행 3:19-23). 이것은 물론 한 순간의 일이 아니라 영원성을 지닌 영화로운 일이다.
- (6) 이와 같은 세상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염원하는 세상이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놓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야만 한다(2, 8-10절).

12. Ⓒ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14절)

- Ⓐ (1) 그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란 말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 즉 어떠한 허물과 죄도 발견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레 22:20; 민 19:2). 물론 이것은 예수의 피 공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참조, 벰전 1:18, 19).
- (2)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므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렇지만 거짓 선생들과 예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

히 이 세상에 집착하는 생활을 한다(2:2, 3, 10).

- (3) 따라서 그들의 생활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 (4) 그러나 예수의 재림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바라보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게 된다.
- (5)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점도 흠도 없는 평강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강’이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1:2) 일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나날이 그 지식을 더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
- (6) 이처럼 오늘날도 불안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비록 그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욥 11:15; 빌 2:15; 3:6).

13. **㉠** 베드로는 자신의 어떠한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과 동일하다고 말했는가? (15절)

- ㉠** (1) 그것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救援)이 될 줄로 여기라’는 가르침이다.
- (2) 즉 이 말은 바울도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생각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신자들에게 권고했다는 뜻이다.
- (3) 또한 예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사라는 베드로의 주장에 바울도 동의했다는 말이다(참조, 롬 2:4).
- (4) 그러므로 베드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관용과 인내를 강조했으며(욥 3:25; 9:22) 재림의 지연을 범죄의 핑계로 삼을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역설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으면 그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즉시 회개하여 확고한 구원을 소유해야 한다(참조, 고후 6:2).

14. **㉠**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잘못 해석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말했는가? (16절)

- ㉠** (1) 바울의 편지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聖經)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 (2)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많은 서신 속에서 재림의 지연이 구원의 기회임을 말했다(참조, 롬 8:19; 고전 15:24; 살전 3:15). 물론 바울 서신은 성경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내용 중에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다.
- (3) 그런데 그것은 바울의 이신 득의(以信得義) 교리, 즉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의미를 잘못 받아들여 칭의(稱義)를 받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예가 있었기 때문이다.
- (4) 또한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바울의 주장(롬 7:4; 8:1, 2; 갈 3:10)을 곡해하여 이를 도덕률 폐기론자의 방탕주의와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발생했다(롬 6:1-7; 고전 6:13-20; 9:1-23).
- (5) 그런데 이와 같은 왜곡은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쉽게 넘어갈 우려가 있는 자들(2:14)에 의해 행해졌다. 그 뿐 아니라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초기 저작(마태, 마가, 누가복음, 야고보서)들마저도 왜곡시켰다.
- (6) 결국 그들은 바울 서신과 다른 성경을 자신들의 뜻과 기호에 맞게 풀이하다가 멸망을 자초했다.
- (7)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모두 알고 있거나 한 것처럼 모든 성경을 자기 논리에 맞추어 설교하거나 가르치지만 그들 중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다.

- (8)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은 그 해석이 과연 기독교의 진리에 부합하는지를 잘 살피며 올바른 해석을 하도록 해야 한다.

15. **㉠ 베드로의 마지막 경계(警戒)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들이 미리 알았으니 무법(無法)한 자들의 미혹(迷惑)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다.
- (2) 여기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미리 안 것'은 1:20의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사이 풀 것이 아니라는 것'과 1절의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다.
- (3) 즉 예언자와 사도의 교훈에 감화받은 신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 (4) 그러나 예언과 사도들의 전승이 '미혹' (유 1:14, 17-20)을 막아내는 방파제의 구실을 한다고 해도 그 지식이 전적으로 미혹을 퇴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 (5) 따라서 성도들은 항상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한다(유 1:1, 21, 24). 이처럼 본서는 유다서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은사와 그에 따른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마 26:41; 벰전 5:8).

16. **㉠ 본서신의 수신자를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인가? (18절)**

- ㉠** (1)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이다.
- (2) 그런데 이에 대한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또 우리 주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는 것이다. 이 번역을 따르면 그 뜻은 다음과 같다. 지식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교제를 나타내며 은총 안에서 자라게 하는 조건이 된다.
- (3) 둘째는 '은혜와 우리 주의 지식 안에서 성장한다'는 번역이다. 그 의미는 1:3에서와 같이 은혜와 지식이 모두 우리 주의 선물이라는 말이다.
- (4) 그리고 이 두번째 번역 안에서 '지식'이란 영적 이해력을 가리키는데(1:5, 6) 그것은 또한 사도적 전통적인 교리에 맞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 (5) 그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은 신비적 경험보다는 그리스도인을 지도하는 실제적인 교훈을 의미하며 멸망케 하는 이단과 정반대되는 정통적인 교리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확실한 종교적 체험 이전에 요구되는 것이 정통적 교훈이며 참된 지식이라고 강조하였다.
- (6) 따라서 잘못된 신앙 지식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장애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1:5; 벰전 2:2).

17. **㉠ 베드로의 마지막 기원은 무엇인가? (18절)**

- ㉠** (1) 그것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란 기원이다.
- (2) 여기서 '저'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기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며 그분에게 영광이 있으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다(참조, 마 16:16).
- (3) 원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참조, 롬 11:36; 유 1:25).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5:23)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 (4) 그리고 '영원한 날'이란 심판의 날, 주의 날, 즉 재림의 날을 가리킨다(7, 10, 12절).
- (5)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림은 당시 거짓 선생들의 교훈, 즉 그리스도의 재림 부인과 그분이 지니신 영광 탈취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 (6) 즉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영광받으실 분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이다.
- (7)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참조, 엠 4:1; 5:2; 요일 1:7).